

『雜同散異』의 서지학적 문제 그리고 類書와의 관계에 대한 몇 개의 旁註

Andreas Mueller-Lee*

-
- | | |
|--------------|----------------|
| 1. 서론 | 4. 제목에 대한 방주 |
| 2. 작가에 대한 방주 | 5. 『잡동산이』의 중요성 |
| 3. 내용에 대한 방주 | 6. 결론 |
-

초록: 여기에서의 『雜同散異』는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을 가리킨다. 이 문헌은 安鼎福의 작품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두 해제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백과전서적이고 잡기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이라고 서술하였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와 영인본의 『解題』는 총독부시대 때 쓴 필사본에 대한 해제이다.

총독부시대에 다시 쓴 『잡동산이』 필사본을 영인본으로 출판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안정복의 저술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잡동산이』를 진정한 안정복의 저술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사실로 보아 『잡동산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잡동산이』를 백과전서 등의 참고서에서는 독자적이고 실학의 대표적 백과전서이라고 그 성격이 점점 더 강하게 소개되었다.

본 연구의 시작점은 안정복의 저술에 대한 연구가 아닌 『잡동산이』와 한국 類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내부적 즉 작가, 내용, 제목과 저술시기 등의 대한 연구와 외부적 즉 글씨체, 찍혀 있는 도장, 사용한 종이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펠로우쉽으로 한국 유서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인 본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양진석 선생님과 Marion Eggert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등의 물리적 특징의 연구로 서지학적으로 재검토 한 결과 『잡동산이』는 다른 책을 전사한 자료집 혹은 잡기로 재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정복의 독단적 작품이 아니다. 일부분은 안정복이 직접 전사를 하였지만 다른 부분들은 李瀾이나 그의 후배들이 전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한국 유서들의 내용이 전사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유서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체적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유서의 형식으로 분류 편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동산이』는 중요한 문헌의 가치가 있다, 이가원 등 몇 학자들이 학계에 밝힌 것과 같이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던 사학적, 문학적 자료들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曹偉의 『萬憤歌』, 그리고 이익이 썼을 가능성이 큰 『東史綱目』의 서문 등이다. 두 『잡동산이』 필사본은 수록 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중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위해 안정복 시대에 쓰인 필사본에 대한 전사한 부분들의 출처까지 기록한 목록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雜同散異, 磻溪隨錄, 東史綱目序, 安鼎福, 類書, 朝鮮後期 百科全書, 曹偉 萬憤歌

1. 서론

조선 후기의 실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雜同散異』라는 작품에 대해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잡동산이』의 저자는 오래 전부터 安鼎福(1712~1791)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미완성 된 類書 혹은 백과사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복의 『잡동산이』는 현재 42책으로 된 안정복 시대에 쓰인 필사본과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취조국 에서 등사한 53책으로 된 필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42권의 필사본은 여러 가지 필체로 난해하고 지저분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반면, 총독부의 것은 목록이 있고, 글씨가 고르게 쓰여 알아보기가 쉽다. 그리고 이 필사본은 1981년에 4권의 영인본으로 출판 되었다.

영인본에서 이이화가 쓴 해제를 보면 『잡동산이』는 안정복이 “지은 類書로 책 이름이 뜻하듯이 잡다한 여러 가지 事項을 모은 雜記이다” 라고 하였고,¹⁾ 1978년에 쓴 규장각 해제에는 “儒教經典, 중국 및 조선의 역사와 제도, 명가들의 저술,

1) 韓國學文獻研究所편, 1981 『雜同散異(解題)』, 『雜同散異』, 亞細亞文化社, iii-vi면.

名物 度數 閭巷 稗說 등 諸般 사항에 관한 것을 收錄한 백과사전적인 책이다.”라고 『잡동산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²⁾ 두 해제는 대부분 총독부의 필사본에 대한 해제이다.

1981년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 안정복의 『잡동산이』에 대해 새롭게 연구된 바는 없으며, 위의 두 해제에서 정의한 『잡동산이』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 여러 논문들 그리고 다른 정보 매체에서 『잡동산이』의 소개는 이 해제에 쓰인 내용들을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안정복의 사상과 저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잡동산이』에 대한 의견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에 발표된 『安鼎福의 思想과 『東史綱目』』이라는 연구 논문의 각주에서 한영우는 “... 『잡동산이』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³⁾ 필자는 『잡동산이』가 안정복의 작품이고, 『星湖僊說』에 이어 비교적 중요한 백과사전으로 소개하면서 왜 안정복의 사상과 저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연구에서 제외시키는지 의문을 가져 본다. 단지 『잡동산이』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인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잡동산이』에 대한 연구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서지학적으로 쓰여진 두 편의 해제 집에서 『잡동산이』에 대한 정의들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 된다.

해제에서는 『잡동산이』를 잡기 또는 백과사전적 성격을 띤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잡동산이』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백과사전이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韓國史』에서 趙誠乙이 『백과전서학의 발달』 중에 박물학적 백과전서의 첫 부분을 다음과 같이 썼다.

이익의 백과전서 학의 전통은 安鼎福에 『雜同散異』라는 저술로도 이어졌다. 이것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단편적 지식을 잡다하게 모아놓은 것이다. 따라서 안정복의 경우 그의 백과전서적 지식은 적극적인 개혁사상과 연결되지 못하였다.⁴⁾

2) 서울大學校奎章閣편, 1978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經·子部』, 409-410면. 안정복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었던 정구복과 한영우 그리고 이이화는 규장각 해제집 편찬에 참여한 했던 학자들로, 이 세 사람 중 누군가가 이 해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韓永愚, 1988 『安鼎福의 思想과 『東史綱目』』 『韓國學報』 14/4, 119면.

4) 국사편찬위원회, 1998 『韓國史(35)』, 334면.

해제에서와 달리 잡다한 내용을 백과전서적 성격으로 된 정리 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조성율은 여기에서 『잡동산이』를 잡다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백과전서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한국사 천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星瀼僊說 順鼎雜散성익사설 순정잡산은 백과전서파 실학을 대표할 만한 서적인 星湖李瀼의 『성호사설 星湖僊說』과 순암順菴 안정복의 『잡동산이 雜同散異』를 이르는 말입니다.⁵⁾

이와 같이 『한국사 천자문』 102번째 이야기에서 『잡동산이』를 백과전서의 대표작품이라 하였다. 이것은 『한국사』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잡동산이』는 유서적 형식으로 분류·편집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발문도 없는 미완성 작품이 어떻게 『성호사설』과 나란히 실학의 대표 서적이라 하였는지 의문을 가져 본다.

필자는 한국 유서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유서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며 연구를 하던 중에 『잡동산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였다. 『잡동산이』에 대해 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모든 내용을 안정복이 직접 쓴 작품인지 그리고 『잡동산이』가 정말 중요한 백과전서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래서 이 책이 연구자들의 손을 걸쳐 작품의 가치를 높여 중요한 연구 자료로 많이 이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의 의견을 기록하였다. 필자는 앞으로 『잡동산이』를 연구 할 때 기존의 규정된 『잡동산이』에 대한 이론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 서지학적 내용 분석으로 이 작품의 저자와 성격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작가에 대한 방주

오래 전부터 안정복이 『잡동산이』의 저자라는 의견이 고정 되어왔다. 1958년에 출판 된 學園社 대백과사전에서 『잡동산이』 저자는 안정복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두 해제가 출판되기 전부터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언제부터

5) 한정주, 2006 『한국사 천자문』, 포럼, 565면.

어떤 이유에서 안정복이라 하였는가?

규장각 해제는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만든 필사본을 기록 한 해제로서 저자를 당연히 안정복의 작품이라 규정한다. 영인본의 해제에서는 “이 책은 단지 서울 대학교 도서관 고도서로 반초서체의 본서가 수장 되어 있는데 3책이 결본인 42책만이 있으며 安鼎福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저자의 수고본으로 보인다”라 하였다. 그 시대에 쓰인 『잡동산이』 필사본에 찍힌 안정복의 도장을 보고 이 작품을 안정복의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연구를 조심스러워 하는 듯하다. 1985년 심우준이 그의 연구 문에 안정복의 저술 중에 “노작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저술”에 대한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도표에는 『잡동산이』가 포함되어 있다.⁶⁾ 그리고 이우성도 심우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필사본 안에 安鼎福印이 찍혀 있는데 왜 두 사람은 순암의 저술로 포함 연구하지 않았을까? 해제에서는 서지학적으로 『잡동산이』를 소개하여 도장이나 안정복에 관련 된 저술에서 그 자취만을 가지고 간단히 결정한 반면 심우준, 이성우 그리고 정규복은 안정복의 연구 과정 중 『잡동산이』 필사본을 살펴보고 그의 저술이라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이화의 영인본 해제에 “[...] 그리고 이 책 속에 『동사강목』의 서문이 수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저작 시기는 『동사강목』의 수정, 보완이 끝난 뒤의 만년, 즉 정조 연간으로 보이며 『성호사설』과 『동사강목』에 담지 못 한 내용들을 수록 한 것으로 짐작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이화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면 『잡동산이』가 쓰인 시기를 『성호사설』과 『동사강목』이 완성 된 이후 즉, 1759에서 1778년에 완성되었으니 1778년경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잡동산이』에 『동사강목』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동사강목』 서문에는 쓴 사람과 시기가 기록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누가 언제 썼는지 알 수는 없다. 이 서문은 『동사강목』의 여러 필사본, 안정복의 문집과 성호 이익의 문집에 수록 되어 있지 않다.⁷⁾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출판된 『동사강목』의 판본에도 없다.⁸⁾ 이 서문에서 보면 “吾友 順

6) 沈暉俊, 1985 『順菴 安鼎福 研究』, 一志社, 37면.

7) 無名氏, 『雜同散異』 卷三, 『東史綱目序』, (亞細亞文化社, 60). 20세기 초까지 『東史綱目』 필사본은 안정복 쓴 서문을 있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된 필사본은 李南珪(1855~1907)의 서문이 있다. [청구기호: 貫600-1-20] 두 서문은 두 사람의 문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안정복, 『順菴先生文集』 卷18, 『東史綱目序』, (문집총간 230, 163면). 이남규, 『修堂遺集』 卷6, 『東史綱目序』, (문집총간349, 493면).

菴 安百順”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순암 자신이 쓴 것은 아니다. 또 『잡동산이』의 내용이 『성호사설』과 『동사강목』에 수록되지 않은 나머지 내용이라면 성호 이익이 쓴 것도 있으니 성호의 작품이기도 한 것인가?

안정복 문집에서 서신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뒷부분을 보면 卷之十에 『東史問答』이라고 쓰여 있다. 이곳에 실린 서신들은 『동사강목』에 관련 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안정복이 李瀾(1681~1763), 李秉休(1710~1773), 尹東奎(1695~1773)에게 서신을 쓴 것으로 보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익이나 윤동규는 안정복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안정복에게 서신을 보낼 때 “내 친구…”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병휴와 안정복의 나이는 겨우 2살 차이인데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尹東奎의 문집 『邵南遺稿』에 안정복에게 쓴 『동사강목』에 관한 서신이 있고 또 서신의 형식으로 쓴 『書百順地理考 安鼎福 改以東史綱目』은 雜著부분에 실려 있으나 그의 문집에는 『동사강목』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고 또 서문을 썼다는 내용의 서신도 없는 것으로 보아 윤동규가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⁹⁾

이병휴의 문집에서 보면 『敬書洪範說後』와 『동사강목』에 있는 『題東史篇面』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서술 되어 있다.

지난 임오년(1762, 영조 38)의 일이 기억난다. 나 병휴(秉休)가 첨성리(瞻星里) 성호가 살던 곳에 가서 모시고 앉아서 훈계를 들을 적에 선생이 그때 82세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백순이 『동사강목』이 이루어지자 나에게 서문을 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는 기성(箕聖)의 홍범을 동국문헌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호대(浩大)하고, 나는 정신이 산만하여 모아서 논설을 지을 수 없으며 자못 망연하다.” 하였다. 그 뒤에 선생이 이 홍범설을 나에게 보내왔으므로 삼가 훑어보니, 범위가 매우 넓고 결어(結語)가 소략하여 동사에 연결될 수 없었다. 그래서 ‘『동사강목』 서’라 하지 않고 다만 홍범설이라 하며, 백순에게 보내지 않고 다만 가숙(家塾)에 두었던 것

8) 조선고서간행회, 1970 『東史綱目』, 경인문화사. 안정복이 쓴 서문 이외에 판본에도 이익의 從子인 貞山 李秉休(1710~1773)의 『題東史篇面』이라는 서문이 실려 있다. 1992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된 이익의 후손 주신 이익書庫의 필사본 『貞山雜著』 제2권에는 이 서문의 뒷부분의 내용만 있다, 이것의 편명은 『敬書洪範說後』이다. 앞부분은 이익이 저술한 『洪範說』이며 이 문집에 포함하고 있다. 이익, 『星湖先生全集』 卷41, 『洪範說』, (문집총간199, 236면).

9) 尹東奎, 『邵南遺稿』 卷14, 『書百順地理考 安鼎福改以東史綱目』, (東아시아學術院 大東文化研究院, 2006, 374면).

이다. 이듬해 12월에 선생이 세상을 뜨게 되어 이 서문이 마침내 완성하지 못한 글이 되었으니, 실로 사문(斯文)의 큰 한이다. 그러나 이 설 가운데 논한 홍범의 교훈은 당(唐)·우(虞)·하(夏)의 3대로부터 은(殷)·주(周)를 거쳐 기자에게 이르러 동방에 전해져서 아직도 다 민몰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데, 이는 예전 사람이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서문의 체계는 아니나 역시 『동사강목』 안에서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자이다…¹⁰⁾

안정복이 이익에게 『동사강목』의 서문을 써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익은 동국문헌의 시작점을 기자에 그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해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단군신화에서 그 시작점을 두었다. 이익은 안정복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거나 혹은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동사강목』의 서문을 완성하지 못 하였다. 이익이 세상을 떠나자 이병휴는 이익에게 받은 홍범설로 『동사강목』에 있는 서문을 썼다. 그리고 그의 문집에 경서홍범설후라는 제목으로 수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익의 미완성 된 서문은 어디에 있는가? 『잡동산이』에 있는 서문의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병이 든 … 부분, 내 친구 … 부분, 단군과 기자설에 관한 내용, 그리고 “吾前日已輟之” 등의 내용이 있다. 이 서문은 『잡동산이』 35권에 수록 되어 있다. 이 권의 첫 페이지부터 『동사강목』의 서문까지의 글씨체가 같다. 다음 페이지는 공백이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송나라의 소동파가 쓴 『史評』을 傳寫한 내용으로 그 글씨는 서문 보다 두껍고 글씨체도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병휴 문집의 내용과 서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잡동산이』에 수록 된 『동사강목』의 서문을 쓴 사람은 성호 이익이 아닌가 추측하여 본다. 그리고 안정복과 이병휴가 성호 이익의 문집을 편찬할 때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이익의 미완성 서문을 찾게 되어, 이것을 『잡동산이』에 수록

10) 민족문화추진회편, 1977~1989 『국역東史綱目 1』, 44-45면.

위에 『題東史篇面』의 번역문은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출판 된 『東史綱目』에 있다. 한문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 記昔壬午, 秉休往星中, 侍坐聽誨時, 先生已八十二歲矣. 乃曰百順東史成, 要余爲序, 此當以箕聖洪範爲東國文獻之本, 而其說浩大, 顧余精神遊散, 無以湊合爲說, 頗有惘然之義. 其後先生以是說, 寄示秉休, 伏以閱之, 則洪範甚廣, 而結語草略, 不能關接於東史. 此所以不謂之東史序, 而只稱洪範說, 不投之百順, 而只留家塾也歟. 其明年十二月, 先生易簣, 此序竟爲未就之文, 實斯文之大恨也. 然說中所論洪範之教, 自唐虞有夏之世, 歷殷歷周, 至箕子而傳於東方, 尙有未盡泯者, 鑿鑿有徵焉. 此前修所未曾發者, 雖非序文之體, 蓋亦東史編中不可少之文字矣. [...]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잡동산이』에 대한 작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잡동산이』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쓴 것으로 추측 한다.

안정복 시대 때 쓴 필사본에는 지금까지 3종류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안정복의 것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의 도장이 있다.¹¹⁾ (도장 1과 도장 2) 도장 1은 『잡동산이』 제4권에 한 번만 찍혀 있는데 이것은 안이라는 글자는 없고 鼎福만 새겨 있는 도장으로 정자는 한자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있다. 도장 2는 제31권과 32권에 한자로만 安鼎福印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다. 두 번째로, 이 도장은 제4권, 11권, 17권, 21권, 26권, 29권, 36권, 40권에 찍혀 있다(도장 3). 이 책들의 종이는 앞면에 이미 사용 한 종이를 접어 다른 면을 재활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미 사용 했던 안쪽 면을 보면 개인의 것이 아닌 관공서에서 사용 한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 도장에 새겨진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도장 1과 도장 3은 『잡동산이』 제4권에 같이 찍혀있다. 도장3이 찍혀 있는 4권을 안정복이 쓴 것이라면 즉, 도장3인 관공서의 도장이 찍혀있는 종이를 안정복이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안정복이 丙申年(1776년) 9월에 木川縣監을 재수 받기는 하였지만, 이 도장에 찍힌 글자는 木川이라는 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안정복이 목천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은 듯하다. 세 번째로, 광(廣)자로 시작하는 도장으로 (도장 4) 이것은 제6권과 21권에 찍혀있다. 이 도장의 글씨체가 너무 흐려 그 정확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안정복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도장이 찍혀 있는 21권이 관공서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안정복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만약 이 책을 안정복이 직접 썼다고 추측한다면, 후일에 이름이 광자로 시작하는 안정복의 제자나 후손이 추가로 찍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잡동산이』 중에 총 11권이 안정복의 도장이 찍힌 것 그리고 관공서의 도장이 찍힌 종이 등의 이유로 안정복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장 2가 찍힌 제31권과 32권의 글씨체와 책의 크기는 서로 똑같다. 그리고 도장 1이 찍힌 제4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다. 그러나 안정복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 책이더라도 책들마다 그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글씨

11) 『잡동산이』에 찍힌 도장들은 참고자료에 실었다.

체도 서로 다르다.

안정복의 도장이 찍혀 있는 책 이외에 다른 책들은 모두 책의 크기와 글씨체가 서로 다르니 누가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규장각에 소장된 『잡동산이』가 안정복의 독자적 저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내용에 대한 방주

안정복 시대 때 쓴 『잡동산이』 필사본 제31권과 32권에 안정복의 도장2가 찍혀 있는데 이 책들의 크기와 표지 모양, 종이, 글씨체가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다면 같은 시기에 쓰인 내용인지는 내용을 분석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두 권 모두 첫째 줄에 『隨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柳馨遠(1622~1673)이 쓴 『礪溪隨錄』을 그대로 전사한 것으로 두 책의 순서를 보면 31권은 수록 券7에서 권16권까지, 32권은 수록 권1에서 권6까지 전사하여 쓴 것이다. 이 두 권의 순서는 1770년 처음 출판한 『반계수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순서에서 권의 번호 뒤에 상하로 구별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정복이 『반계수록』이 출판되기 전에 傳寫한 것 같다.

안정복이 乙未年(1775년)에 쓴 『礪溪年譜跋』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甲子年(1744년)에 먼저 京師에 계시는 수촌공을 만나서 선생소저 수록을 빌려 집으로 가서 모두 읽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秀村公은 유형원의 후손인 柳發(1683~1775)을 가리키며 수록은 오늘날의 『반계수록』을 가리킨다.¹²⁾ 안정복과 유발, 『반계수록』에 관련된 문헌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정복은 『반계년보 발문』뿐만 아니라 『반계년보』도 썼다.¹³⁾ 그리고 성호 이익은 『반계수록』을 출판하기 전에 이미 그 서문을 썼다.¹⁴⁾ 일찍이 유발이 소장하고 있던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안정복에게 빌려 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출판본 『반계수록』에는 李瀾(1725~?)의 서문과 1737년 吳光運(1689~1745)이 쓴

12) 안정복, 『順菴先生文集』 卷18, 『礪溪年譜跋』, (문집총간230, 174면).

13) 李家源(1917~2000)은 『반계년보 발문』과 『반계년보』를 안정복의 『覆瓿』에서 찾아서 이 문장들을 이가원이 직접 교정하고 베껴 써서 발행하였다. 이가원, 1974 『礪溪先生年譜』 [연세대학교] 『人文科學』 23, 540-576면.

14) 이익, 『星湖先生全集』 卷50, 『礪溪隨錄序』, (문집총간199, 423면).

서문이 있다. 그리고 유형원이 직접 쓴 발문과 유발의 아들 柳明渭가 쓴 발문 『磻溪隨錄補遺跋』이 있다. 百弗菴 崔興遠(1705~1786)은 『반계수록』의 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의 연보에서 보면 1744년에 『반계수록』을 처음 보았고 이후 1770년에 왕명을 받고 출판에 관여하고 또 이미에게 지시하여 『반계수록』의 서문을 쓰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미가 『반계수록』을 편찬하였을 가능성도 추측한다. 그리고 안정복이 최흥원의 묘지명과 유발의 행장을 쓰기도 하였다. 그래서 안정복은 『반계수록』과 관계성이 있는 유발, 최흥원과 친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위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잡동산이』의 필사본의 31권과 32권은 안정복이 직접 『반계수록』 출판 26년 전에 전사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31권과 32권에 수록된 『반계수록』의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권의 번호가 바뀐 것은 후대의 소유자 했던 사람이 정리 과정에서 착오를 한 것 같다.

필자가 『잡동산이』 작품에 관심 있게 본 다른 하나는 책 표지의 제목이다. 31권, 32권 이외에도 많은 책들의 바깥 책 표지 위에 『잡동산이』라는 글자가 쓰인 종이가 덧붙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3권 모두 안 쪽 첫째 줄에 잡동산이라는 글자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잡동산이라는 서명과 책의 수록된 내용은 관계성이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이 종이를 붙인 사람은 안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안정복이 직접 했다면 제대로 편집 안 된 미완성 작품의 제목을 꼭 바꿀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위의 『반계수록』의 앞 뒤 내용이 『잡동산이』에서 그 순서가 바뀐 것을 보아 이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목까지 고쳐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안정복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제4권을 보면 첫 장에 목록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圖書編』이라는 제목과 함께 첫째 줄이 시작된다. 이 작품은 총 127권인 명나라 때 출판된 類書이다. 이 한 권에는 도서편만 수록되어 있고 쓴 사람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수록하려고 작은 글씨로 뽁뽁하게 썼다. 안정복의 도장이 찍힌 책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닌 한 종류의 책을 전사한 것이다. 유서의 내용인 『반계수록』과 도서편 이외에 다른 유서의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해제에는 『잡동산이』 성격을 유서적 혹은 백과전서 적이라고 기록한 것 같다. 총독부의 필사본을 1981년 4권의 영인본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중 제1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었다.

15) 안정복, 『順菴先生文集』 卷24, 『通政大夫 贈左承旨行禦侮將軍 世子翊衛司翊贊百弗菴崔公墓誌銘並序辛亥』, (문집총간 230, 286면). 『順菴先生文集』 卷25, 『崇祿大夫行中樞府事秀村柳公行狀丙申』, (문집총간 230, 311면).

도표 1. 影印本 『잡동산이』 卷之一의 내용

자료명	국적	卷數	전사한 卷數	페이지	자료의 종류
大學衍義補	明	160	1-38	8-92	子部/儒家類 (四庫全書)
[八編]	[明]			92-157	
圖書編	明	127	29-43, 68-77, 79-86	157-285	子部/類家類 (四庫全書)
文獻備考	朝鮮	100	1, 3, 8, 12, 16-22, 53-55, 63-99	286-487	史部/政法類/通制 (奎章閣)
輿地勝覽	朝鮮	55	6-55	488-507	史部/地理類/總誌 (奎章閣)
續大典	朝鮮	6	1-6	507-531	史部/政法類/通制 (奎章閣)
없음				531-538	
[經濟一覽]				539-569	
尊周錄	朝鮮	5+4(後篇)	3-4 (後篇)	570-591	子部/儒家類 (藏書閣)
[奇字字典]				592-667	

도표에서 보면 『대학연의보』는 대학에서 강의한 것을 보충하여 쓴 것이고, 『도서편』은 명 말에 나오는 유서, 그리고 『輿地勝覽』이 실려 있다. 1770년에 편집한 『文獻備考』는 대부분이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편찬한 類書들, 예를 들어 李睟光(1563~1628)의 『芝峯類說』, 魚叔權의 『攷事撮要』, 權文海(1534~1591)의 『東國韻府群玉』이 있다. 類書 이외에도 광범위한 다른 내용을 전사하였다.

영인본의 해제에 나오는 『동사강목』과 『성호사설』을 편집할 때 수록 되지 않은 내용을 『잡동산이』에 실었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전사 기록은 하였지만 만물편, 식물편, 기계, 의료 등의 유서의 형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동사강목』에서 빠진 내용을 실었다면 역사적인 내용이 비교적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잡동산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필사본을 같이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시대에 쓴 필사본과 총독부의 필사본은 내용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이 빠진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총독부의 필사본에는 안정복이 전사하여 쓴 『반계수록』의 내용이 단지 한 페이지 밖에 없

도표 2. 두 필사본 대한 비교

안정복 시대	총독부 시대
冊1	冊1 (전체 내용 아님)
冊2	冊34 (전체)
冊3	없음
冊4 (『圖書編』, 도장 1)	冊4~5 (전체)
冊5	冊45 (전체 내용 아님)
冊31~32 (『磻溪隨錄』, 도장2)	없음
冊35	冊29 (전체)

다. 다음의 도표는 두 필사본의 일부분의 내용과 그 내용이 실린 책의 순서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안정복은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의 편집자이고, 역사서 『동사강목』과 유서인 『萬物類聚』의 저자이다. 『만물유취』는 끝까지 완성은 하지 않았지만 유서의 형식을 갖추었고, 그 내용으로 중국의 주희학파의 사상이 담긴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다. 『잡동산이』와 『만물유취』는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많고, 안정복이 즐겨 인용하는 주희의 사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은 『잡동산이』는 안정복의 미완성 된 백과전서라기보다는 전체적 내용을 보아서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 남의 책을 빌려다 베낀 자료집 혹은 잡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 필사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안정복이 직접 쓴 것과 전사한 부분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이 있는지 누가 쓴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제목에 대한 방주

『잡동산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잡동산이: 1. 잡다한 것이 한데 뒤 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 2. 그럴듯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이화의 해제에는 『잡동사니』에서 취음하여 『잡동산이』라 했고 내용은 『잡동사니』와 같은 성격이라 하였다. 잡동사니라는 단어는 중국의 역사책, 사전, 사고전서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 단어의 어원은 한국에서부터 사용 한 것 같다.

필자는 안정복의 『잡동산이』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규장각에 소장된 안정복의 『잡동산이』 필사본 두 권 이외에도 동일한 제목을 가진 여러 다른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에 소장 된 『雜同散異抄』는 『兒戲原覽』이라는 다른 제목이 있으며 기초 교육서의 목적으로 자료를 수록한 책이다.

장서각에는 한 권씩으로 된 두 종류의 『잡동산이』가 있는데, 한 권은 중국 사료의 전사본이고 다른 한 권은 한국의 작품들을 전사한 것과 서신 그리고 洪萬選(1643~1715)이 쓴 유서 『山林經濟』의 한 부분을 전사 한 것과 조선 초기 姜希孟(1424~1483)이 쓴 농업과 관련 된 한시 14편이 『選農謳』에 실려 있다. 책 뒷부분에는 안정복과 『잡동산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1965년 5월 1일에 서지학자 南涯 安春根(1926~1993)이 불펜으로 본인의 개인적 의견을 쓴 것이다. 안춘근이 이 책의 저자가 아니고 단지 소장 한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학교의 것은 중국, 조선시대의 가사와 중국, 조선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문과 한자를 혼용하여 쓴 작품이다.

서울대학교도서관 개인문고실에 『잡동산이』와 비슷한 책 두 편이 있다. 『雜同散考』와 『雜同類纂』이 그것이다. 이 두 작품의 성격을 유서로 볼 수 있다. 3책으로 된 『잡동산고』는 1771년에 출판 된 徐命膺(1716~1787)이 쓴 『攷事新書』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 한 것이다. 이 3책을 상, 중, 하로 나누는데 상에는 『고사신서』 13권과 14권, 중에는 10권과 11권, 하에는 15권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 안에는 『고사신서』라는 책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雜同散考의 표지에는 책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다른 부분은 분실되고 3책만 남아 있는 듯하다. 1책으로 된 『잡동유찬』은 柳僖(1773~1837) 『物名考』를 그대로 전사 한 것이다.¹⁶⁾

이렇게 『잡동산이』는 안정복 시대의 『잡동산이』 이외에도 여러 작품의 책명으로

16) 고려대학교와 안동대학교에 『잡동산이』의 책들이 소장 되어 있는데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

사용하였다. 잡동산이라는 단어를 누가,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조선의 학자들이 잡동산의 의미로 잡다한 것을 기록하였거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한 것을 책으로 엮어 잡동산이라 이름 짓지 않았나 생각한다.

5. 『잡동산』의 중요성

『잡동산』에 유서적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잡동산』의 중요성을 찾아 연구의 자료로 이용 할 때 유서보다는 잡기라는 장르의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시작점은 국어국문학의 조선후기의 고전문학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를 위한 자료가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金台俊(1905~1950)은 홍길동전 이전에 쓰인 소설 『喬山小說』을 『잡동산』에서 찾았다. 김태준이 어느 『잡동산』에서 찾았는지 기록 않아 알 수 없지만 이 『교산소설』은 『홍길동전』을 쓰기 위해 중요한 자료였다고 한다. 그러나 몇 십 년 전부터 이 『교산소설』은 찾아 볼 수 없다.¹⁷⁾ 『잡동산』를 많이 연구한 李家源(1917~2000)도 『교산소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1980년에 출판 된 이가원이 쓴 『韓國文學研究小攷』에 1979년에 쓴 서문이 있다. 이 서문에 본인과 『잡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雜同散異』라는 말을 있다. 『섞어 놓았을 때는 같았던 것이 흩어지고 보면 달라졌다』는 뜻이다. [...] 그러나, 나에게 앞에서 安鼎福은 軼文 奇事を 엮어 『雜同散異』라 하였고 [...]。¹⁸⁾

이 이유로 『한국문학연구소고』의 제목을 『잡동산』라 붙이지 않았다. 1987년에 간행 된 문집을 『雜同散異集』이라 하였다. 이가원이 196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잡동산』 제44권에서 曹偉(1454~1503)가 쓴 『萬憤歌』를 찾았는데 가

17) 허경진, 2007 『실학연구지자(實學研究之資)의 자료적 기치』 『東方學志』 137, 102-103면.
이가원, 1997 『朝鮮文學史(中冊)』, 태학사, 753-754면.

18) 이가원, 1980 『韓國文學研究小攷』, 延世大學校出版部, 1면.
허경진, 앞의 논문, 96면.

사 『만분가』는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 되는 고귀한 작품이라 하였다.¹⁹⁾

이가원은 『잡동산이』를 백과전서로 이해하지 않고 잡기나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작품이나 이야기들을 기록 한 책으로 보고 오래 전부터 연구 자료로 이용한 것 같다.

『잡동산이』의 자료집으로서의 중요성은 이가원의 문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동사강목』은 역사학적 자료로 참고 되고, 족보 학에도 『잡동산이』를 자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잡동산이』 영인본 제4권 에서 李德孫(?~1301), 그의 처 庾氏(1277~1326)와 許氏(1255~1324)의 묘지명을 찾았다.²⁰⁾

6. 결론

『잡동산이』의 두 해제에서 안정복이 백과전서적인 『잡동산이』를 썼다라고 정의한 이후, 『한국사』와 『한국사 천자문』은 해제에서 보다 그 정의를 더 강하게 『잡동산이』의 저자는 안정복이며 백과전서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단정하였다. 해제에서 이미 시작 된 『잡동산이』의 저자 내용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깊어 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안정복의 저술과 사상을 연구 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잡동산이』를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출판되지 않은 필사본의 작품을 연구할 때는 이미 그 작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한 출판된 목판본보다는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필사본은 연구자의 개인적 생각에 의해 그 책에 대해 여러 가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체는 『잡동산이』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몇 권에 찍힌 안정복의 도장 등의 이유로 『잡동산이』 전체를 안정복 한 사람이 쓴 작품으로 단정 짓게 된다는 것이다. 이익의 『성호사설』과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는 필사본으로 된 유서의 작품들이다. 이 책에서 이규경은 한 편 한 편 그 내용을 마무리하여 썼고 근래에 와서 유서의 형식으로 분류·편집하였다. 『성호사설』도 안정복이 유서의 형식으로 편집하였다. 이 두 작품과 『잡동산이』에서 유서를 전사한 부분을 비교하면 그 성격이 비슷하나 그렇다고 『잡동산이』를 유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잡동산이』를

19) 이가원, 1963 『『萬憤歌』研究』 『東方學志』 6, 153-170면.

허경진, 앞의 논문, 103면. 허경진과 다른 연구자들은 『만분가』를 『잡동산이』 44권에서 찾지 못 하였다. 왜냐하면 이 가사는 43권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20) <http://www.koreanhistory.or.kr>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유서적 작품을 그대로 전사하였고, 그 유서적 내용이 있는 부분도 그 절반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국 유서는 근본적으로 이미 출판된 여러 분야의 자료들을 분류별로 정리한 책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혹은 자료집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료집은 유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잡동산이』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잡동산이』에서 학자들은 몇 개의 중요한 자료들을 찾게 되었다. 필자 또한 『반계수록』을 전사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반계수록』은 출판되기 이전의 것으로 총독부 시대의 필사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필사본에서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잡동산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연구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규장각에 소장된 두 필사본을 정리 비교하여 그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총독부 시대의 필사본은 글씨가 깨끗하게 쓰여 보기는 쉽겠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 다른 필사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상당하고, 내용이 수록된 책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였다. 이가원도 총독부의 필사본이 아니라 다른 필사본에서 조위의 가사를 찾았다. 그리고 책 안에 페이지를 잘라서 그 안쪽에도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여기에서 만분가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귀중한 연구 자료들이 숨어 있는 『잡동산이』를 연구하여 그 가치를 높여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安鼎福, 『東史綱目』, 20冊 [고려대학교] (貴600-1-20).
 安鼎福, 『東史綱目』, (조선고서간행회편, 1970; 민족문화추진회편, 1977~1989).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18, 『東史綱目序』, (문집총간 230).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18, 『礪溪年譜跋』, (문집총간 230).
 安鼎福, 『礪溪先生年譜』, (李家源謹校并寫, 1974 [연세대학교] 『人文科學』 23).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24, 『通政大夫 贈左承旨行禦侮將軍 世子翊衛司翊贊百

- 弗菴崔公墓誌銘並序辛亥』, (문집총간 230).
-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25, 『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秀村柳公行狀丙申』, (문집총간 230).
- 尹東奎, 『邵南遺稿』 卷14, 『書百順地理考安鼎福改以東史綱目』, (東아시아學術院 大東文化研究院, 2006).
- 李南珪, 『修堂遺集』 卷6, 『東史綱目序』, (문집총간 349).
- 李秉休, 『貞山雜著』 卷2, 『敬書洪範說後』, [국립중앙도서관] (성호古 3649-188).
- 李秉休, 『국역東史綱目』, 『題東史篇面』, (민족문화추진회편, 1977~1989).
- 李瀼, 『星湖先生全集』 卷41, 『洪範說』, (문집총간 199).
- 李瀼, 『星湖先生全集』 卷50, 『磻溪隨錄序』, (문집총간 199).
- 『雜同散考』 [3冊 서울대학교] (一簣 082.2-J111).
- 『雜同散異』 (韓國學文獻研究所편, 1981). 冊35, 『東史綱目序』 [42冊 규장각] (古 0160-12).
- 『雜同散異』 冊29, 『東史綱目序』 [53冊, 규장각] (奎7178), (亞細亞文化社, 1981).
- 『雜同散異』 [1冊, 단국대학교] (고851.2-잡141).
- 『雜同散異抄』 [1冊, 연세대학교] (고서(원씨) 031.03).
- 『雜同散異』 [1冊, 장서각] (B90-18).
- 『雜同散異』 [1冊, 장서각] (C14D-15).
- 『雜同類纂』 [1冊, 서울대학교] (一簣 080.3-J111).

2. 논저

- 국사편찬위원회편, 1998 『조선후기의 문화』 『韓國史』 35.
- 서울대학교奎章閣편, 1978 『雜同散異(7178)』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經·子部』.
- 沈喁俊, 1985 『順菴 安鼎福 研究』, 一志社.
- 李家源, 1963 『『萬憤歌』 研究』 『東方學志』 6.
- 李家源, 1980 『韓國文學研究小攷』, 延世大學校出版部.
- 李家源, 1997 『朝鮮文學史』, 태학사.
- 韓國學文獻研究所편, 1981 『雜同散異(解題)』 『雜同散異』 亞細亞文化社.
- 韓永愚, 1988 『安鼎福의 思想과 『東史綱目』』 『韓國學報』 14/4.
- 한정주, 2006 『한국사 천자문』, 포럼.
- 허경진, 2007 『실학연구지자(實學研究之資)의 자료적 가치』 『東方學志』 137.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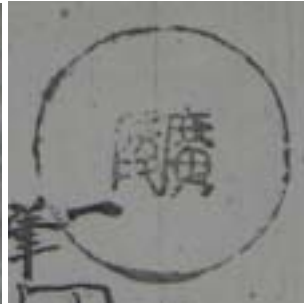
도장 1: 鼎福



도장2: 安鼎福印



도장3: 이면에 찍힌 도장. 원래의 모습과 뒤집힌 형태.



도장 4: 누구의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광(廣)자로 시작하는 도장

史記
 堯不讓四山 史記乎他情故而言於帝清流其工於志後以變
 柱杖故續覺於堂山以度奪靈迂三苗於三危以變西戎繼歸
 於朔山以度東身太史公多見先秦故事故其言皆有所考以
 正自便以未便者失之四後者蓋皆窮矣極惡則由具誅於支
 之世不待時而後誅則矣居身有主既章直而忘身則既至
 則而抱上者身一若四後者誠皆小人也則安能用之以度四身之
 俗哉由法現之則四族之誅皆非誅死亦不廢身但過之遠方
 焉要荒之居耳山左氏之所言皆後世便儂之過君貴之世有大

東史綱目序
 徐福大東史氏多利於海而於濟海之際法正不可信其難則者深入其
 者者等則水之已甚而程正傳者若私家每善其不飲廣漢第自便
 居者之望可至轉而勝也增前造園者反眼蓋安下烟防是後已其
 世觀之若曰東史綱目其事多難地文正尚考他然一信來也獨可打亦
 此情執捕其已度其史度念甚後日施工而便區區在使神身而已
 板立意教者則不同矣蓋採其精者公事其事亦多有不足少

제35권의 『동사강목』 서문에 있는 글씨체

제35권의 소동파의 『사평』을 전사한 글씨체

Abstract

Some Source-critical Remarks on the *Miscellaneous Similarities and Scattered Differences* (雜同散異) and its Relation to Pre-modern Encyclopedic Taxonomies of Writings (類書)

Andreas Mueller-Lee

Chaptong sani (雜同散異) refers today in particular to a manuscript ascribed to An Chǒngbok (1712~1791) that is defined by two source-critical descriptions (解題) as an encyclopaedic and miscellaneous collection of materials on a wide range of subjects. Since 1981 it became known to a wider scientific audience through a facsimile-edition of a later copy in a more legible script from the colonial period (both manuscripts are kept in the Kyujanggak-Archive), and the *Source-Critical Descriptions on Korean Sources of Kyujanggak*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as well as the source-critical description in the facsimile-edition focus on this copy. In view of the fact that since then *Chaptong sani* has not been regarded as one of An Chǒngbok's authentic writings, there might not have been any need for a thorough study, but during the last decade it was more and more introduced as an independent and outstanding encyclopaedic work of the sirhak-tradition in reference works and historical survey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research is thus not the relation of *Chaptong sani* to other writings of An Chǒngbok but its relation to Korean taxonomies of writings (類書). The source-critical re-examination (of authorship, contents, title, structure, dating and other related issues for the so-called inner part and of script, seals, the paper used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manuscript's physical state for the so-called outer part) resulted in the re-definition of *Chaptong sani* as a collection of note-books that were written not only by An Chǒngbok but probably also by his teacher Yi Ik (1681~1763) as well as by disciples of An Chǒngbok. Both manuscripts contain parts of a number of

Chinese and Korean *yusŏ*, but they cannot even be regarded as an unfinished *yusŏ* because neither a general organising or classifying principle (類) nor any characteristic of an editing process could be identified. However, *Chaptong sani* is still an important pre-modern source as scholars like Yi Kawŏn (1917~2000) have shown because it also contains historical and literary texts like a Middle-Korean song (歌辭) written by Cho Wi (1454~1503) or a preface to An Chŏngbok's *Outline of Korean History* (東史綱目), probably written by Yi Ik, which are not extant in other sources. But as Cho Wi's *kasa* and also a number of other texts can only be found in the older manuscript,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Chaptong sani* thus demands a table of contents on the basis of this manuscript that contains also information about the sources copied.

Keywords: *Miscellaneous Similarities and Scattered Differences* (雜同散異), Pre-modern Korean Encyclopedias, Classified Books/Taxonomy of Writings (類書), *Outline of Korean History* (東史綱目), An Chŏngbok (安鼎福), Yi Ik (李瀾), Cho Wi (曹偉)